

APEC Green Customs for MSMEs Workshop

- 환경규제와 세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





APEC Green Customs for MSMEs Workshop

- 환경규제와 세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



박현희
한국원산지정보원 신통상규제팀 전문연구원



들어가며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문제는 정치적·과학적·경제적 복잡성이 얹혀있는 범세계적 차원의 의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공공, 민간 분야의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1995년 WTO 체제 아래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CTE)가 설치된 이후 2001년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¹⁾이 진행되면서, 국제무역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 방안 중 하나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최근 환경규제는 환경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넘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적 요소와 결합하는 등 다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1) DDA 환경의제는 각료선언 31조에 따른 3개의 협상의제(① WTO 규범과 다자간환경협약(MEAs)상 특정무역의무와의 관계, ② WTO와 MEAs 사무국 간 정보교환 정례화 및 Observer 지위 부여, ③ 환경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무역자유화)와 각료선언 32조에 따른 3개의 검토의제(① 환경정책과 무역정책의 상호작용, ② 지적재산권 협정의 환경 측면, ③ 에코 라벨링)로 구성

사례로 EU의 CBAM²⁾과 같은 환경규제는 원자재부터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전체를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어 기업의 입장에서 부담이 더욱 과중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규제 다변화 속에서 지난 2025년 2월 24~25일 중소기업(MSMEs)이 직면하는 도전과 기회를 논의하기 위한 APEC Green Customs for MSMEs Workshop³⁾이 경주에서 개최되었다. 관세청, 한국원산지정보원, (사)한국FTA원산지연구회 세 기관의 협업을 통해 진행된 행사에서는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대응전략과 이를 위한 세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본고에서는 2025년 APEC Green Customs for MSMEs Workshop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프로그램]

Day 1 (FEB. 24TH) – Green Customs for MSMEs Workshop	
SESSION 1	Environmental Regulation Issues and International Responses
SESSION 2	Carbon Neutrality Strategy and Improved Customs Clearance
SESSION 3	Challenges and Responses of Customs Authorities Related to Green Customs
SESSION 4	Supply Chain Management for Seamless Cross-Border Movement of Environment-Friendly Products
Day 2 (FEB. 25TH) – Exhibition of Customs Technologies	
Showcase 1	X-ray training program
Showcase 2	AI-based tracking system for high-risk passengers
Showcase 3	Passenger verification (facial recognition)
Showcase 4	3D multi-function radiation detection system
Showcase 5	Virtual Reality (VR) Training System

- 2)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이란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하는 탄소유출(Carbon Leakage)을 해결하기 위해 EU가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로 EU 수입업체에 대하여 제품 생산국에서 지불하는 탄소 비용과 EU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탄소 비용 차이만큼 CBAM 인증서의 구매를 의무화하는 조치가 포함됨
- 3) APEC은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등 21개국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최대 경제협력체로 우리나라는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됨. 정상회의에 앞서 2025년 2월 24일부터 14일간 경주에서 제1차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산하 회의 중 통관절차소위원회(SCCP)의 프로젝트 기금 지원을 받아 APEC Green Customs for MSMEs Workshop이 개최됨



[Green Customs for MSMEs Workshop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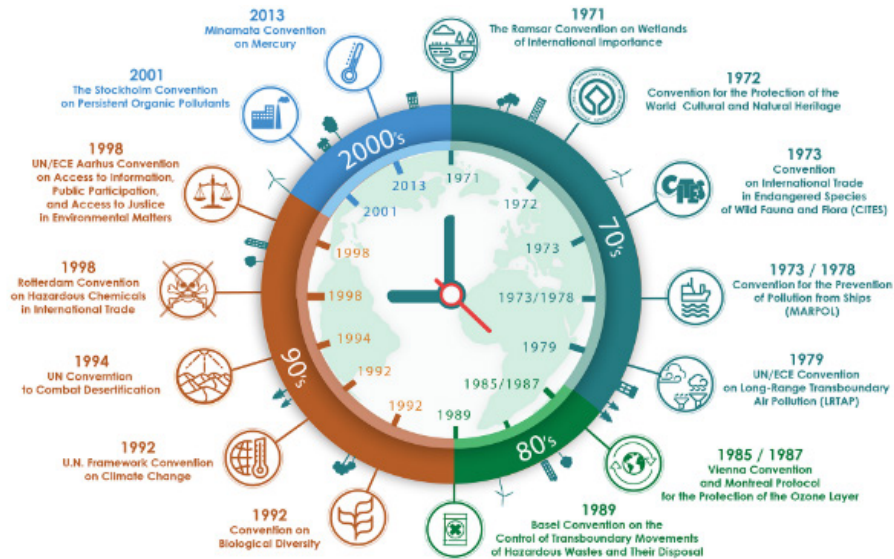


2. 다자간환경협약과 세관의 역할 논의

다자간환경협약(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MEAs)은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여러 국가 간에 체결되어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약으로, 현재 전 세계 250개 이상의 MEAs가 체결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협약의 특징 중 하나는 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여러 무역규제조치를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제4조는 특정 규제물질의 수출입 금지 및 비당사국과의 무역 통제를 명시하고 있으며, 「바젤협약」 제4조 역시 유해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의 비당사국 수출·수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다자간환경협정(MEAs)]



출처: UNEP

문제는 이러한 규제가 특히 중소기업(MSMEs)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제한적이며,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또한, 기술 개발 및 대체 에너지 활용과 같은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역량이 부족하여 규제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본 워크샵에서는 중소기업의 환경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으며, 특히 물품 통관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세관의 역할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논의된 주요 사항 중 하나는 중소기업이 환경규제를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세관 차원의 정보 제공이 절실하다는 점이었다. 이를 위해 세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확대, 기업 컨설팅을 통한 규제 정보 제공, 국내 유관 기관 및 세계관세기구(WCO), 유엔환경계획(UNEP), MEAs 사무국 등과의 지속적인 협력 강화 필요성 등이 강조되었다.

3. Green Customs 사례 소개

이어서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칠레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각국의 환경규제 및 다자간환경협약에 대응하는 세관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정부 및 세관 차원의 규제 대응 노하우를 소개하며, 불법 환경 범죄 차단을 위한 조치와 Green Customs 실현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국 사례로는 친환경·업사이클링 산업 수출 지원 전략이 소개되었으며, 해당 발표는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오윤진 팀장이 진행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이 가속화됨에 따라, 한국에서도 이에 맞춰 친환경 및 업사이클링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GR 인증⁴⁾, 재제조제품 품질인증⁵⁾, 올바로 시스템⁶⁾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오 팀장은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세관 차원의 구체적인 수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 주장하며, 특히, 해당 산업 제품의 FTA 협정관세 적용 가능성 검토, 산업 변화에 따른 FTA 원산지규정 개정 및 정책적 개선 등이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각국 환경규제 대응 사례 소개]

발표자	제목	내용
Jun XU (China)	Enforcement Cases of Illegal Import of Waste	중국 폐기물 밀수 사례 소개
Hidayat ACHMAD (Indonesia)	Customs Clearance System for the Prevention of Illegal Timber Exports	인도네시아 불법 목재 수출에 관한 세관 통제 및 사례 소개
Haizir RAZALI (Malaysia)	Export Support Strategy for Products (palm oil) in Compliance with Regulations on Prevention of Deforestation	지속가능한 팜 오일 수출을 위한 말레이시아 세관 지원 방안 소개
Tuan Hung HA (Viet Nam)	Circular Economy in Waste Management in Vietnam	베트남 폐기물 수입 관련 법령 및 불법 폐기물 수입에 대한 세관 사례 소개
Raimundo BRAVO (Chile)	Transformative Bioprocesses: The Green Future of Contraband Cigarettes	칠레 담배 밀수에 대한 세관 사례 소개
Yunjin OH (Korea)	Strategy for Export Support for Eco-friendly and Upcycling Industry	친환경·업사이클링 산업 수출지원 전략 소개

4) GR(Good Recycled Product) 인증: 재활용 제품별 표준 및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여 제품의 품질, 친환경성 등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

5)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

6) 폐기물의 배출부터 운반·최종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 또는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을 이용하여 관리하기 위한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



4. 맺음말

이번 APEC Green Customs for MSMEs Workshop에서는 중소기업이 직면한 환경규제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였다. 특히, △환경 규제 정보 제공 체계 구축, △세관 역량 강화, △국제 협력 확대 등과 같은 세관 차원의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오늘날 환경규제는 글로벌 무역의 핵심 요인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번 워크숍을 통한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중소기업이 이를 리스크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